

寄協에 健協을 통합

10월17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통합한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7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86년도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에 의거 기생충관리의 지속적인 실시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사업의 확대실시를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 흡수 합병하여 사업형태와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徐丙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寄協은 1964년 온갖 역경을 딛고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기생충감염율이 5% 내

외라는 경이적인 감소현황을 보여 명실공히 내실을 기하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사항으로서 86년도 사업실적보고, 예산집행 현황 보고등이있었으며, 부의안건으로는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寄協과 健協의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협회통합의 건의로 寄協이 健協을 흡수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협회통합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홍보실을 홍보부로 개편하는등 5부1실로 개편하고, 통합에 따른 정관의 사업내용을 일부 보강했다.

健康사업을 活性化

臨終, 통합한 등의

健協은 지난 10월17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서 健協사업의 활성화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실시코져 寄協으로 흡수 합병됨에 동의했다.

본부 및 서울시지부 검사소 준공식

10월17일 협회마당에서



증가하는 만성병질환과 기생충병을 퇴치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할 본부 및 서울시지부 검사소가 지난 10월17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소요예산 2억4천여만을 들여 올림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86년 2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공사한 검사소는 지하 103평, 지상 317평, 총 420평의 철근콘크리트 스타브 건

물이다.

이번에 새로이 신축된 검사소의 사용 용도로는 지하에는 휴게실, 홍보관, 1층은 심전도실 및 健協검사실, 2층은 회장실, 본부 일반행정사무실, 3층은 寄協검사실 및 서울지부행정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

1986년도 대한기생충학회 및 추계 학술대회 개최

10월31일, 한양대학교에서

대한기생충학회(회장 임경일)는 지난 10월 31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1986년도 대한기생충학회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 임경일회장의 개회사로 진행된 학회는 학술대회를 끝으로 18:00시에 폐회됐다.

불우이웃 성광원에 위문품 전달

9월17일, 충남지부에서

寄協 충남지부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지난 9월17일 충청남도 논산군 광석면 울리에 소재한 음성나환자 자활촌인 성광원에 김치수 사무국장등 간부진들이 방문, 성광원 김계환 회장에게 대형벽시계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